

〈서평〉

창작과 비평을 잇는 아름다운 다리

- 『실내악: 무한한 상상력의 락樂』 (음악미학연구회 엮음)

정태봉

‘젊은 작곡가들, 그리고 작품들을 정성 어린 눈으로 살피며, 그 속에 녹아 있는 뜻을, 현대음악 애호가들에게, 살뜰히 전해 주는 전문 서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가다가 나오는 것이라도...’ 필자가 30대 시절부터 자주 하던 생각이다. 직업적 작곡가로서의 삶에 시나브로 젖어 들어가는 과정의 작곡가들에게 필요한 것이야 참 많기도 하겠지만, 작품 하나에 담은 뜻이나 작품세계 전반을 좀 더 분명한 언어로 풀어서 애호가들에게 전해 주는 전문 서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 생각했던 것이다.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 보였다. 그런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던 모양이다. 젊은 작곡가들이나 그들의 작품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잡지류(雜誌類)가 있긴 했으나 전문적인 것은 전혀 아니었다. 단발성(單發性) 비평은 있었어도, 젊은 작곡가들의 정신세계나 작품을 체계적으로 조명한 글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구려 세월이 흘러 필자는 환갑을 넘겼고 이제 고희(古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실내악: 무한한 상상력의 락樂』 (이하 『...락樂』으로 표기함)을 접하고 필자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리도 오래 기다리던 책, 이제 옛 꿈에 그치고 미는가 싶던 그 책을 본 것이다. 필자를 30대로 데리고 가는 타임머신이라고 할까, 참 묘한 힘을 지닌 책이다 싶었다. ‘음악미학연구회’가 어떤 모임인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능력이 어떠한지, 필자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 그렇긴 해도 그 모임에서 하는 일, 그 지평이 이리 넓어질 줄은 미처 몰랐다.

『...락樂』은 열 명의 음악학자들이 모두 스물아홉 명의 30~40대 작곡가들과 그들의 대표적인 최근 작품들을 분담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전문 서적이다. 작곡가 별로, 정신세계와 작곡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다음, 하나의 작품을 보다 세부적으로 조명한 후 작곡가와 대화로 마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전문 서적이면서도, 현대음악에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애호가라면 어렵지 않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난이도의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 작곡가들로부터 알맹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음악학자들의 의지가 빛을 발하는 대화편도 주목을 끈다. 빼놓을 수 없는 점 또 하나, 스물아홉 명의 작곡가들을 다섯 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개별 작곡가들이 지니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개성 혹은 추구하는 바를 참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독자들에게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 낸 참으로 큰 성과이다. 이러한 배려가 독자들에게는 북극성(北極星)의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 현대음악의 좌표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한다.

『...락樂』에 실린 스물아홉 명의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30~40대 작곡가들의 대표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들 중 20년 혹은 30년 후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진화(進化)를 거듭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장담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 하나, 현 시점에서 작곡가, 음악학자 그리고 현대음악 애호가들에게 『...락樂』이 기여하는 바가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는 점, 그것은 부정하기가 오히려 어렵고 또 부정할 이유도 없는 사실이다. 『...락樂』의 서문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강 건너편의 작곡가를 이쪽으로 초대하거나 직접 건너는 우리의 이러한 시도가 작곡과 음악학, 창작과 비평 사이에서 소통과 교류의 다리가 되기를 바라본다.’ 필자가 답한다. 창작과 비평 사이에 『...락樂』이라는 아름다운 다리 하나가 이미 놓였다.

* 『실내악: 무한한 상상력의 락樂』은 2018년 음악미학연구회가 엮고 모노폴리가 출판한 [한국창작음악비평과 해석 사이의 첫 번째 시리즈]이다. 본서에는 2000년 이후 작곡된 29곡의 실내악이 ‘새로운 음향세계를 꿈꾸다, 음악이 담아내는 음악이 아닌 세계, 음악으로 읽는 이야기와 극, 한국적 그 무언가를 담아서, 감각으로 인지되는 음악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다섯 카테고리에 나누어 실려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기존의 척도에 의한 가치 평가를 넘어서 다각적인 접근으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의미와 기법 및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논하면서 작곡가를 이해하고 청중과의 폭넓은 교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본서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작곡가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정리했으며, QR코드를 사용하여 독자가 직접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이 책에 실린 작곡가와 작품, 그리고 비평과 해석 사이를 넘나들며 작업한 음악학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I. 새로운 음향세계를 꿈꾸다!

1. 강동규, 〈엔탈피〉(2013) / 글 지형주
(L'ENTALPHIE pour Quatour à bois, 2013)
2. 김정훈, 〈코러스〉(2016) / 글 오희숙
(Chorus für Violin, Violoncello & 2 Percussions, 2016)
3. 신지수, 〈소금쟁이는 더 이상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2013) / 글 김석영
(The Pond Skater Does Not Like Water Anymore for Piano Quartet, 2013)
4. 유도원, 〈침묵의 공간으로부터의 파동〉(2017) / 글 유태연
(The Waves from Silent Space for Cello and Piano, 2016/2017)
5. 이도훈, 〈얼어붙은 시간〉(2007) / 글 정다운
(Gefrorene Zeit für vier Instrumentalisten, 2007)
6. 이용범, 〈상상의 방〉(2015) / 글 강지영
(Imaginary Rooms for flute, violin, cello, contrabass and percussion, 2017)
7. 최한별, 〈애니메이트〉(2018) / 글 유태연
(Imaginary Rooms for flute, violin, cello, contrabass and percussion, 2017)

II. 음악이 담아내는 음악이 아닌 세계

8. 강혜리, 〈모던 타임즈〉(2017) / 글 강지영
(Modern Times for 2 percussion players, 2017)
9. 고태암, 〈별이 빛나는 밤에〉(2016/2017) / 글 지형주
(The Starry Night, 2016/2017 개작)
10. 김택수, 〈콩트르당스〉(2012) / 글 손민경
(Sketches for Contredanse, 2012)
11. 남상봉, 〈태엽장치 장난감〉(2015) / 글 오희숙
(Clockwork Toy, 2015)
12. 박명훈, 〈씨앗들〉(2011) / 글 손민경
(Seeds for Flute Violin and Piano, 2011)
13. 배동진, 〈레플렉티브〉(2014) / 글 강지영
(reflective for piano quartet, 2014)
14. 신동훈, 〈세 개의 미로〉(2018) / 글 김석영
(Three Labyrinths, 2018)
15. 한대섭, 〈소리의 풍경〉(2011) / 글 이혜진
(Klanglandschaft für 11 Instrumentalisten, 2011)

III. 음악으로 읽는 이야기와 극

16. 김지향, 〈브라운 부인의 경우〉(2017) / 글 지형주
(In the Case of Mrs. Brown, 2017)
17. 나실인, 〈호모 루덴스〉(2015) / 글 정다운
(Homo Ludens, 2015)
18. 오예승, 〈매쉬업〉(2014) / 글 김석영
(Mash-up for Violin, Double bass, and Piano, 2014)
19. 전예은, 〈다섯의 게임〉(2013/2018) / 글 유태연
(A Game of Five for Soprano, flute and viola, 2013)
20. 조한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7) / 글 원유선
(Alice in Wonderland for Clarinet and String Quartet, 2017)

IV. 한국적 그 무언가를 찾아서

21. 고병량,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한(韓)'〉(2015) / 글 손민경
(‘Han’ for two pianos, 2015)
22. 배승혜, 〈버들은〉(2016) / 글 김석영
(Willow Varies for 11 Players, 2016)
23. 이강규, 〈분산〉(2017) / 글 원유선
(Dispersion for Haegeum, Gayageum, Violin and Piano, 2017)
24. 이예진, 〈바룻〉(2018) / 글 오희숙
(BARUT for Vocal, Flute and Geomungo, 2018)

V. 감각으로 인지되는 음악의 시간과 공간

25. 류경선, 〈갈망〉(2005) / 글 지형주
(Desire for Piano Quartet, 2005)
26. 이병무, 〈팬엄브라〉(2018) / 글 이민희
(Penumbra for Piano and Electronic sound, 2018)
27. 이은지, 〈인탈리오〉(2015) / 글 이혜진
(Intaglio for Clarinet, Violincello and Piano, 2015)
28. 임재경, 〈도형놀이3〉(2016) / 글 강지영
(Kubus III for Flute and Clarinet, 2016)
29. 전현석, 〈방랑자〉(2011) / 글 이혜진
(Der Wanderer für 4 Klarinetten, 2011)

